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공평보급 중요” 경제 연대협력 강조

**文 대통령, G20 정상회의
액트-에이 출범·확장적 재정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발판”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 날인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세션에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선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협업체액트-에이(ACT-A) 출범과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 공동 대응 조치를 두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도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해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지한 뒤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에 환영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복원과 함께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네 차례에 걸친 재정 투입과 함께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열리게 됐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으로 모두 2개 세션과 2개 부대행사가 열린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 정부 제안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문장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농진청 개발 농업용 트랙터 조작표시 기호 3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으로 채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용 트랙터의 조작표시 기호’ 3종이 지난달 30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기호로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농업기계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농진청이 개발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2015년), ‘트랙터 중심위치 측정방법(2018년)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이번 성과는 농진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

이 공동으로 2017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뒤 3년에 걸친 기술적 대응을 거쳐 이뤄낸 것이다.

이번에 표준기호로 채택된 ‘농업용 트랙터의 조작표시 기호’ 3종은 트랙터 계기판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해 후진하거나 선회 시 작업기를 들어 올리도록 경고하는 표시다. 농업용 트랙터 조작표시 기호는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며, 이번에 채택된 기호 3종은 그동안 표준기호가 없어 나라별, 기업별로 다르게 사용돼 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대생·교수·기업인 온라인서 모인다

산업부 ‘2020 공학페스티벌’
23~27일 5일간 유튜브 등서 개최

전국 공과대 학생, 교수 등 공학인과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대면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7일까지 5일간 ‘2020 공학페스티벌(E2Festa 2020)’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공학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학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기업과 공학대학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행사는 ‘공학 챌린지워크, 계속되는 도전’을 주제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5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 특성을 반영해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구성에 변화를 줬다.

특히 메인 행사인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심사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국 87개 공과대학 140개 팀



2020 공학페스티벌이 23~27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은 2020 공학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캡처한 모습.

이 참여하며, 동영상을 통한 예산과 본선 심사에 1500여명의 공과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본선 후보작 21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작품해설이 25일 11시부터 유튜브로 중계돼, 타 전공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공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계와 공대생이 소통하고 취준생·일반인까지 여러 주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계 이슈를 공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엔지니어 토크콘서트’, 국내 AI 산업 현황과 최첨단 기술이

야기가 담긴 ‘AI 기업 오픈클래스’ 등은 공대생과 산업계가 심도 깊게 소통하는 현장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더스티리 미팅’은 2012년부터 개최된 공학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선배들과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공학의 미래, 공대생 취업 등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2007년부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국 67개 공과대학의 75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152억원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축산악취 우려지역 개선 3개월... 암모니아수치 44% ↓

농식품부, 시설 악취원인 진단·개선
8개지역 주민 58% “악취개선 체감”

전국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곳에 대한 악취 개선 활동을 벌인 결과 3개월 만에 암모니아 수치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열린 축산 악취 우려지역에 대한 악취개선 성과 공유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축산 악취 우려 지역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많았던 고속도

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등의 지역으로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해 특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선정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우선 대학 교수 등과 전문가를 꾸려 10개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악취 원인을 진단, 개선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지역 106개 농장과 분뇨처리시설 암모니아 수치는 지난 7월 평균 24.5ppm에서 10월 13.8ppm으로 43.7% 감소했다. 8개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58.3%가

‘악취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안성시의 경우 암모니아 측정 수치가 약 60% 정도 감소했고, 김제시 신안마을의 경우 악취 민원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했으나, 악취 개선활동으로 예년 대비 무취일수가 25% 증가하고, 유효 악취발생일수는 약 54%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취 개선활동을 벌인 결과 단기적인 개선 필요사항의 86%가 이행을 완료했다”며 “연내 나머지 개선 필요사항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충북 옥천서 새출발

오늘 문정리 공공청사서 개청식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 오후 2시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개청식에는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해 김재중 옥천군수, 임만재 옥천군의회위원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해양수산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지난 1999년 5월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최초 설립된 이래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위치 정보를 선박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06년 1월 지상파항법시스템인 ‘Loran-C’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측위·항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확대됐고, 2015년 5월에 측위·항법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금의 국립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옥천청사 /해수부

해양측위정보원으로 승격됐다.

이번 옥천신청사이전은 기관승격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조직·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측위정보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축공사에는 총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정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소요전력의 32%를 충당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장치(96kW)를 설치했다.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옥천으로 이전한 만큼, 지역주민과 청소년 대상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 해양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23~26일 온라인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26일까지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하하호호 청년토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채용정보 취득이 곤란한 청년구직자들에게 기관별 세부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일 중 오후 2시~3시30분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청년구직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기관별 채용 특징,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방법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직접 알아 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